



[녹]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24년 11월 17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성 이윤일 요한 한인천주교회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 미사 시간

-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 평일미사: 수, 금 오후 8시

◆ 공소 미사

-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오후 7시)
-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오후 5시)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30분

◆ 봉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

◆ 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704.531.8417

◆ 사목회의

매월 2째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 본당신부

이진희 사도요한
Rev. Jinhee Lee
1227jeanlee@gmail.com

◆ 사목회장

박정례 에스더
estherjeongpark@gmail.com
704.208.9006

◆ 사무실

stjohnleecharlotte@gmail.com
704.531.8417

◆ 주소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 미사 전례

• 성가

입당 48 봉헌 41 성체 46, 31 파견 436

• 제 1독서

〈그 때에 네 백성은 구원을 받으리라.〉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12,1-3

• 화답송



• 제 2독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10,11-14.18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The Transfiguration of Christ by Peter Paul Rubens

• 복음

〈사람의 아들은 자기
가 선택한 이들을 사
방에서 모을 것이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
다.13,24-32





성모당 담당, 교구 사료실장
이연춘(마르첼리노) 신부

말씀 KEY WORD

그 날

(헤 헤매라 에케이네 ή ημέρα εκείνη)

‘그날’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묵시주의적 표현입니다. 신약성경의 시대는 묵시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묵시주의는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절박한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신앙인에게 묵시주의는 어제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하느님 만이 전부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절박함입니다.

두 사람에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마태오 18:20]



그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모두 모은다고 하지요. 선택된 이들은 ‘참 좋겠다’ 하고 잠시 묵상해 봅니다. 그곳에 있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 중’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은 멀어 보입니다. ‘깨어 기다리는 중’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듯해서 말입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 돈을 벌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잃지요.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또 돈을 잃어버립니다.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살아 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그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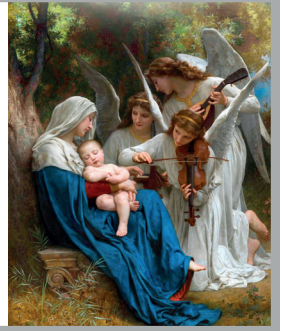
다가오는 ‘그날’은 여름이 다가올 때 싹을 내는 무화과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들을 내는 것은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도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와 희망,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으로 박하게 살아갑니다. 더 얻으려고만 했지 주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박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얻는다. 그러나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더 박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채우기보다 비우면 행복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깨어 기다리는 중’이 그랬듯이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는 종에게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분명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2024년 본당 사목표어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미사 및 성시간에 적극 참여
2. 본당 행사와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
3. 제단체 활성화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주일미사 후 삼종기도 바치기
- 입당성가 2절까지 부르기
- 성당 안에 들어오시면 침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령 성월 안내

- 11월은 위령성월의 달입니다. 미사 전 다 함께 위령 성월기도를 바치겠습니다.

3. 평일 미사 안내

- 11월27일 (수) 11월 29일(금) 은 땡스기빙 연휴를 맞아 가족들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많이 떠나는 관계로 평일 미사가 없습니다.

4. 2차 헌금 안내 :

- 목적 : Catholic Ca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일시 : 11월 24일(일)

5. 재무위원회 협조 안내

- 교무금을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은 다음주 주보 교무금 납부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 교구에서 배당된 가정당 DSA 금액은 \$250 입니다. 해가 바뀌기전에 완납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6. 놀이터 신축 및 주차장 공사

우리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주차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변화를 만들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훼손된 성물을 수거합니다.

친교실에 마련된 수거용 박스에 넣어주시면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꾸리아 모임 안내

- 일시 : 11월17일(일) 미사후

9. 땡스기빙 전체 친교안내

- 일시 : 11월 24일(일)
- 11월 28일 땡스기빙 디너를 대신해서 11월 24일 일요일에 전체 친교가 있습니다.

10. 위령회 연차총회 안내

- 일시 : 11월 17일(일) 12시 30분
- 장소 : 유아실

위령회 연차총회가 있을 예정이니 위령회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위령회에 관심 있으신 교우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11. 줌으로 하는 연중 신앙 특강

- 주최: 미주카톨릭 평화신문
- 대림특강 1: "오늘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 일시 : 12월 1일(일) 오후 8시(EST)(90분)
- 강사 : 옥현진 시몬 주교님
(광주대교구장/로마 그레고리오 대학 교회사 박사)
- Meeting ID : 813 360 8420
- Password : 12345

미사 참례자 수: 11 월 10 일 (106명)

우리들의 정성(11월 10일)

주일 헌금	\$ 1,003.00	DSA	\$100.00
교무금	\$ 2,020.00	감사헌금	\$ 300.00
건축 헌금	\$ 505.00	2차 헌금	\$ 40.00
매일 미사	\$ 14.00	총액	\$3,982.00

• **교무금** : 신부님, 이덕원, 한은경, 김순여, 손태성, 이수복, 박봉철, 이근모, 한철교, 한금자, 정성기, 이형일, 설상욱, 구경태, 하양아, 김원재

• **DSA** : 민병석

• **감사헌금** : 박정례, 한금자

생 미사	권영재 사도요한
------	----------

연 미사	신종석 요한
------	--------

병중에 계신분	박은수 라우렌시오, 신완식 안드레아
---------	---------------------

전례	구역/일시	전례담당
연중 제 33주일 세계 가난한이의날	3구역 11 월 17 일(일) 10:30am	• 해 설: 이창수 • 독 서: 이연준, 황정선 • 기 도: 김연민, 윤보원 • 봉 헌: 박봉철, 박정미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주예수 그리스 도 왕 대축일	4구역 11 월 24 일(일) 10:30am	• 해 설: 홍무연 • 독 서: 이현우, 이명옥 • 봉 헌: 김영일, 김미선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집회 21,5 참조)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 다
다른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집회서의 저자 벤
시라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구하는 여정에서
계시의 기본 진리들 가운데 하나를 발견합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 앞에서 그들
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시지 않고서는 ‘참지 못하실’
정도로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
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목숨조차 없었을 것입니
다. 무기와 관련된 그릇된 정책으로 얼마나 점점 더
많은 이가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무
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등 돌릴 수 없습니다.

기도에 봉헌된 이 해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
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가난한 이들과 함께 기도하
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이자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목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이가 겪는 최악의 차별은 영적
관심의 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복
음의 기쁨』, 200항).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한시도 잊지 못하십니
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는 듯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하느님께서 우
리의 고통에 무심하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침묵에는, 하느님과 그분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담
겨 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정
규 거행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가난

한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존과 필요
를 인식하라는 도전 과제를 모든 신자에게 내어놓
는, 그래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사목적 기
회입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그
들을 지원하는 데에 헌신하는 사제, 축성 생활자, 남
녀 평신도는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당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
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성은 만남과 곁에 있어 줌으로 드러나는
애덕 안에서 확인됩니다. 기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덕도 기
도가 없으면 이내 바닥이 드러나고 마는 자선 행위
에 불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삶을 바친 콜카타의 마더 테
레사 성녀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는
사명을 위한 힘과 믿음을 바로 기도에서 길어 올렸
음을 계속해서 거듭 밝혔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저
는 그저 기도하는 가난한 수녀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당신 사랑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가
난한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 줍니다.”

성년을 향한 여정에서, 저는 모두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를 권고합니다. 잠시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작은 관
심과 미소, 다정한 손길, 위로의 한 마디를 건넵시다.
이러한 몸짓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
마다 노력이 필요하고 흔히 드러나지 않으며 조용하
지만 기도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